



자기 중심에 아주 그냥 심봉을 꽂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밖에서 다가오고 안에서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할까? 그러니까 남이 해 주는 게 없어요. 남이 대신 살아 주면서 대치를 할까, 어떡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그러더라도 똥 누는 거 대신 뉘 줄 수도 없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죽는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대신 해 줄 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뜻하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괴로운 거를 그냥 '거기서 또 나오는구나! 하하, 나 공부시키느라고 참 잘 나온다.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내일은 생각지도 않아. 그저 오늘 모든 걸... 너를 믿으니까. 다 네 몫이니까. 그리고 네가 끌고 다니니까.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해서 믿고 놓는 거죠.

그런데 대치를 해서 바꿔 봐야만이 바뀌어서 나오지, '너 할 대로 해라' 하고 그냥 놓으면 아무 것도 입력되는 게 없어요. '너 할 대로 해라' 그것만 입력이 되는 거죠. 음식을 하더라도 양념이 제대로 들어가고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맞지 않으면 텅텅하고 맛이 없죠.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도 간이 맞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인생이 간이 맞게 태어나면 간이 맞게 살거든요. 넘치지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말입니다.

난 그래서요, 옷 한 가지가 더 들어오면 거북해요. 거북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착이죠. 그러나 번뇌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번뇌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전부가 번뇌입니다. 번뇌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번뇌지, 그것이 도를 이루어 나가는 도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도리를 알아서만 한다면 여여하게, 그냥 참 가지런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세에서 한번 이런 공부들 해서 공부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냥 세세생생입니다. 그래서 '한 생 좀 어려우면 어떻게 한 생 좀 고달픈지 어떠냐?' 하는 거죠. 어저께도 합창단 후원회에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구나.' 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하, 좀 고달픈지 어떠냐, 더불어 같이 고달팠지 여러분만 고달프라고 한 거는 아니잖느냐.'

자나 깨나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이 있을 가리만큼 말입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뺏속에서는 피가 흐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된다 안 된다는 떠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근본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상세계의 자유인이 된다면, 마음으로써 마음껏 건질 수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은 좁은데 우주 세상은 넓다고 생각지도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나 하세계에서 사는 것들이나 또 상세계에, 즉 말하

가 항상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거, 지는 거 할 거 없이 뭐 전체가 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냥 찰나찰나 바뀌어서 자꾸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생각들 해 보세요. 안 그런가! 멍청하게 이것만 (컵을 들어 보이며) 보고 있으면 '저 사람, 갓 들었는데...' 이럴 겁니다. 아마. 한 가지만 듣고 있는 사람 어디 보셨어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소리 듣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소리 듣고,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되고, 저거 보면 저렇게 생각되고... 아니, 고정되게 한

또 심어지면 그게 또 모두를 먹고도 또 되남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 그 씨앗이, 종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씨앗이 아니라 형체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화해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 모습으로 물체가 보였지만 그건 물체 아닌 물체죠.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게 생각납니다.

'십리 안팎으로 모든 것을 지켜 주고 있다'고 말

록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대중 웃음) 아, 이거 웃음... 아이! 지금 웃죠? 나도 그 후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결겔대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다니까요. 떡이 떨어질 줄 알고, 어디서 나올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허탕이예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한 가지 얘기할 게, 배가 고프질 않아요. 허기가 지는 법도 없고, 배가 고프는 일도 없고 말입니다. 참, 이런 말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데도, 내가 학자가 아니고 글을 잘 모르니까 필로 가르쳤느냐 하면 물 한 모금 먹는 걸로도 가르쳤어요. 몸이 다 지친 상태니까 영금 영금 기어가서 그걸 먹는데 말입니다. 한 모금 먹고 두 모금 먹고 세 모금 먹으니까, '네가 그렇게 여러 모금 먹어도 소용없다. 한 모금을 먹어도 아홉 모금이고, 아홉 모금을 먹어도 한 모금이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고정됨이 없어서 아홉 모금이 따로 없고, 한 모금이 따로 없고, 하루가 따로 없고, 삼천 년이 따로 없다. 이 세상은 모두가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따라서 한 모금에도 목을 축일 수가 있고, 아홉 모금 먹어도 목이 부증이 나고 다투어진다 이거죠. 그 뜻을 알면 한 모금을 먹어도 아홉 모금 먹은 목이 된다 이런 뜻이고, 들쭉는 삼천 년 전도 지금 현실이고, 하나도 셋이 되고 셋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니까 삼천전전세계를 돌 아나게 알게 되더라 얘기죠.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필 자꾸 적어 가지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득 생각나서 '아, 요런 건 좀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 할 때, 질문을 허심탄화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예요. 살아가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형! 이거 이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니예요. 평등한 가운데에서, 단지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다녀왔고 여러분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가만 갔다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뿐이예요. 자유스럽게 과거를 드나들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현실로 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이 도리를 알면, 바른 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자면 우주에서 사는 세상이나 똑같아요. 크고 작을 뿐이죠.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면 즐기고, 또 늘어나면 또 즐기고 또 속아 내고, 이렇게 하듯이 별성도 역시 그렇거든요.

지금 지구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듯이 우리도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초월해서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이니 그대로 여여하구나.'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쳤든 성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연연하고 그렇게 애쓰고 사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늘이 무너져서 다 깨진다 하더라도 너만 깨지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하하하... 이 모습은 세상에 한 번 죽지 두 번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죽는다고 해도 그게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씨앗은 남아요. 그 씨앗이

입니다. 그전에 산에서 공부할 때의 얘기죠. 먹을 걸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땸밤에 수풀을 깔고 앉아 있는데 '애야, 십 리 안팎으로는 다 주둔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다 비취서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빵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빵! 사실은 떡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빵이라고 그림니다마는, 하하하... 그런데 미련해서 말입니다. 이 떡이 어디서 떨어지나 하고 밤새도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홍련암)



무자년 한해에 낙산사 복원불사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낙산사

- 낙산포교당
- 불교대학
- 관음회
- 보현회
- 의상회
- 바라밀회
- 합창단

■ 낙산사 복지재단

- 낙산 상락원
- 낙산 노인복지센터
- 낙산 노인전문 요양원
- 무료급식소
- 무산 지역아동센터
- 낙산 유치원

뿌리깊은 종단 보람어는 교구

제25교구 본사 奉先寺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인 목 부주지 해송

총무국장 보인 기획국장 장산 교무국장 지환 재무국장 보관 사회국장 범원
포교국장 지견 호법국장 환적 종책실장 헤림 문화원장 왕산 문화국장 지학



■ 부설기관

- 연꽃유치원
- 장자어린이집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청소년 일시쉼터
- 남양주시 지역아동보호센터
-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http://www.bongsunsa.net